

여성건축가가 본 탁아시설 설계방향

입지 선정이 어린이 안전좌우

대로변이나 공장지대, 강, 호수, 철도 등이 인접한 곳은 피해야

탁아시설을 신설할 때는 입지의 선정에서부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신체경 교수가 <여성건축가협회지> 최근호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탁아시설의 입지는 우선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골목에 면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공장이나 비행장 주변과 같이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하고 병원,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등의 시설과는 인접해 있는 것이 좋다. 특히 주위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나 철도, 강, 바다, 연못, 호수 등

이 없어야 하며 아동의 주거지역과 가까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어린이 안전에 좋다고 한다.

신 교수는 또 공간구성에 있어 화장실의 위치가 보육아동의 연령에 따라 0~3세의 영아기에는 화장실이 보육실에 함께 있는 것이 바람직하

며 4~6세의 유아기에는 화장실이 보육실 밖에 따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3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배변으로 인해 자주 씻어 주어야 하므로 화장실 한쪽에 간단한 샤워시설이나 아이를 씻길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탁아시설의 공간구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사시설과 수납시설의 부족. 대부분의 탁아소가 원장실 이외의 교사시설이 부족해 교사들의 교재개발, 연구 및 휴식 등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낮잠을 위한 이부자리, 각종 교구 및 놀이기구등 아동용 물품이 부피가 일정치 않아 넓은 면적의 교사시설과 수납시설이 요구된다. 또한 탁아소는 일반 교육만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달리 아동의 양육을 맡아야 되는 곳이므로 아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침대를 갖

춘 양호시설이 필수적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화재 등의 비상시를 대비해 창문의 안전창살을 개폐식으로 하고 자칫 전기에 감전되지 않도록 콘센트 덮개 등의 안전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계단은 경사도, 넓이 등에 세심한 고려를

해야하며 난간을 설치하고 출입문의 문턱도 없애는 것이 좋다. 온수시설은 대부분 난방이 가동될 때만 사용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온수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바람직하다. <이은희 기자>

민속학자가 보는 요즘세상

억대거지

김명자/안동대 민속학과 교수



◀ 탁아소의 위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